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stfrand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톨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제 2 독서] ......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1요한 4,12 참조

- ◎ 알렐루야

[성가안내]

- 입당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 성체성가 [187]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 민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지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b>ी</b> गार्	복원				
홍문표 어거스틴 이경자 벨라뎃다 이종현/목영순 강견대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김영숙 카타리나 안영옥 분다 이경자 율리안나 율릿다 김경련				
481214	부성				
최은자 세실리아/고현실 이로잔 캐더린 이규완 안토니오/이은경 헬렌 안영일 가리스도 김기례 레지나 (건강회복을 위해) 배옥희 쏘피아 (건강회복을 위해) Cho Pago 라파엘 (영명축일 축하)	익명 이미숙 안나 이미숙 안나 안영옥 분다 황경숙 수산나 진봉숙 소화데레사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 <del>독</del> 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0월 3일	채봉석	박기목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그레고리오	알버트	율리안나	율리안나	비비안나
10월10일	백이백	민완준	최진영	민완준	유정옥
	아오스딩	필립보	수산나	필립보	유스티나

####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10.1 소화데레사 10.2 수호천사 10.4 프란치스코 10.5 파우스티나 10.6 브루노 10.7 묵주기도의 성모 10.9 디오니시오 10.11 요한 23세 10.14 갈리스토 10.15 대 데레사 10.16 마르가리타 마리아알라코크 10.17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10.18 루카 10.20 십자가의 성 바오로 10.24 안토니오 마리아클라렛 10.28 시몬, 유다(타데오)사도

● 오늘부터 미사 시간전에 묵주의 기도 바칩니다.

10월 묵주의 기도 성월을 맞아 주일 미사 전에 '**영광의 신비'** 1단씩 마칩니다. (10/3- 1단, 10/10-2단, 10/17-3단, 10/24-4단, 10/31-5단)

● 공동체의 지난 25년간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e-book (홈페이지)에 25년의 역사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역사자료, 글, 사진등을 찾습니다.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으신 분은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랍니다.

● 오늘, 10월 3일 유수일 주교님께서 미사 집전하십니다.

프란치스코회 유수일 주교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시어 주일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돌아가길 희망하며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347-882-2244

#### ● 청년 전례부원 모집

빠른 시일안에 청년을모임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에 올려지는 청년미사에 봉사하실 전례부원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청년 전례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청년 성서 모임 개강 'Zoom Meeting'

- 대 상 : 세례 받은 청년 (예비신자도 가능)

- 과 정 : 창세개,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 신청마감 : 2021. 10. 10.

- 첫 모 임: 2021. 10. 17. 오후 1시 (줌 링크 추후 공지)

- 문 의 : 대표 봉사자 김 진섭 야고보 (201-912-7577)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 ◈ 묵 주 기 도 성 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 [2021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아오스딩)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이백 변호사

이민전문

그리운.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ATTORNEY A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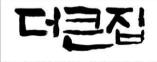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 10,2-16)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혼인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외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협력자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 하느님 앞에서 하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창세 3,12).

앞에서 한 말과 지금 이 말이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나요? 아담의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요? 그에게 아담은 남편이 아니라, 이른바 '남의 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도 이처럼 현실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성경이 전해 주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한 어려움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 견뎌 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때로는 '남의 편' 같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남편 그리고 아내는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어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 박 형순 바오로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 마음의 치유제인 눈물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예전 우리 어른들은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여자가 울면 집안에서 복이 나간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며 우는 것에 깊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리치료가 발전하면서 울음이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컷 울고나면 치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질 못하고 울지 못할 때 그것이 가슴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수많은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때의 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컷 울어야 합니다. 아기들을 보면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런 아이들처럼 해 주어야 합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데로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울다보면 서럽 던 마음이 가라앉고 한 덩어리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서러운 일이 생기면 목 놓아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치 못한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로봇처럼 보이는 어른이 됩니다. 무엇을 봐도 감동을 못하고 무표정한 어른들은 울지 못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울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 합니다. 울지 못한 자기 마음안의 어떤 것이 투사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하루 30분 실컷 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울어야 산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성인 신부가 되고픈 신부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당에 가서 조배한다. 근데 천박한 신자들이 그런 나를 보고 대인 기피증이라고 수군댄다.

난 성인신부가 목표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려 한다. 근데 그런 나를 두고 자폐증이라느니 치매라느니 말들이 많다. 천박한 것들은 사람을 몰라본다.

난 성인신부라는 칭호가 좋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신자란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왜 '우 리 본당 신부님이 성인신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사람을 몰라보는 천박한 것들이다.

나는 나의 영성이 성인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강론 때도 항상성인들의 영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왜 내 미사에는 젊은것들은 하나도 안 오는 것일까? 왜 귀가 어두운 노인들만 오는 것일까? 그래도 지난번에 할매 한 분이 내 강론시간에 눈물을 흘려서나도 울컥했다. 그래서 미사 후 물어봤다. 자매님 제 강론의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셔셔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러자할머니 왈, 강론은 잘 모르겠고 내 목소리가 얼마 전 죽은 반려견 소리와 비슷해서 울었단다. 헐! 내 강론이 개소리?